

새·해·인·사·말·씀

희망찬 乙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.

이제 출범한지 다섯 돌이 된 한국여성재단도
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시민사회공익재단이라는 소명을 다시 새기며
또 다른 5년을 향해 큰 보폭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.

지난 5년 동안 한국여성재단은
여성을 위한 모금활동 자체가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
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임을 배웠습니다.
그 운동의 장애 늘 함께 하며 오늘의 재단을 만들어주신
22만여명의 평등지킴이들께 다시한 번 깊이 머리숙여 감사드리며
새해 인사 드립니다.

한국여성재단은
지난 12월 6일, 창립5주년 기념행사에서
새로운 세계와 사회를 열어가는 재단으로 도약하고자 하는
간절한 마음을 담아 '재단약, 2010,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' 여는 다짐을
새롭게 선포하였습니다.
이 다짐을 다시 새기며 더불어 2005년 한 해에도
여성들이 세계시민사회와 통일시대를 주체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
견인차 역할을 하는 재단이 되는데 더욱 힘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.

지금 우리사회는 정치, 경제, 사회적으로
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있습니다.
이럴 때일수록 재단이 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
더욱 분발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하리라 생각합니다.
이를 위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
지금처럼 재단의 버팀목이신 선생님께서
평등지킴이로 계속 힘을 모아주신다면
올유년 한해도 재단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
지속적으로 재단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
희망찬 세상을 꿈꾸시는 선생님가정에
행복이 넘치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